

식약처, '25년 1분기 식품 수입 동향 발표

- 국내 수급 불안정 등 물가조절용 식품의 수입량 급증
- 경제성·편의성을 우선시하는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1분기 국내로 수입된 식품*은 20만 3천여 건, 86억 6천만 달러, 470만 7천톤 상당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수입건수는 2.9%, 금액은 3.5%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 등 분류(이하 '품목군') :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24년 1분기 : 수입건수 197,468건, 수입금액 83억 7천만 달러, 수입중량 475만톤

동 기간 우리나라가 식품을 수입한 국가는 총 150개국으로, 그 중 미국(대두, 밀 등), 중국(김치, 폴리프로필렌 등), 호주(밀,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 등)에서 전체 수입량의 58.5%인 275만톤을 수입했다.

품목군별로는 가공식품(29.6%, 25억 6천만 달러, 156만톤), 축산물(24.8%, 21억 5천만 달러, 42만톤), 농·임산물(19.7%, 17억 6백만 달러, 222만톤), 수산물(11.9%, 10억 2천만 달러, 23만톤), 기구 또는 용기·포장(7.8%, 6억 7천만 달러, 15만톤), 식품첨가물(3.6%, 3억 1천만 달러, 11만톤), 건강기능식품(2.8%, 2억 4천만 달러, 5천톤) 순이다.

올해 1분기에는 최근의 산업 환경, SNS 등 온라인 소비 트렌드, 각종 사회 현상 등에 따른 소비자 소비 심리 변화가 식품 수입 동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국내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물가조절용 식품의 수입량 급증 >

농·임산물 중 식품제조용 원료로 많이 사용하는 밀(73만 9천톤 → 57만 1천톤, -22.7%)과 옥수수(63만6천톤 → 59만4천톤, -6.7%)는 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2025년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이에 반해 양파, 양배추, 배추, 감귤 등 신선 농산물의 수입량이 13.5%(33만4천톤 → 37만9천톤) 증가했는데, 국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물가·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할당관세*를 운영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 「관세법」 제7조에 따라 물가나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특정 물품(중량)에 대하여 일정 기간 관세를 줄여주는 제도

< 온라인에서 인기 많은 식품의 수입 증가 >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다양한 조리 레시피가 공유되면서 요거트, 땅콩버터 등 트렌드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다양한 식재료를 얹은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별집꿀의 수입이 급증(1천5백 달러 → 38만5천 달러, +25,885%)했다.

또한 ‘땅콩버터 다이어트’가 관심을 끌면서 땅콩버터(4백 3십만 달러 → 8백 7십만 달러, +101.7%)와 더불어 땅콩 등 견과류(8천 5백만 달러 → 1억 2천만 달러, +38.1%)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마시멜로우와 과자·견과일을 혼합하여 만드는 ‘쫄득쿠키’가 유행하면서 마시멜로우(2백 3십만 달러→3백 3십만 달러, +44.3%)의 수입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 경제성·편의성을 추구하는 최근 식품 소비 행태 반영 >

최근 국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을 우선시하고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성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수입식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우선 와인, 샴페인 등 과실주의 수입량이 전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1만2천톤 → 1만8천톤, +47.9%)한 반면, 수입액(1억1천만 달러→1억 달러, -8.1%)은 감소하였다. 이는 고가의 제품보다는 합리적인 가격과 적절한 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 수입 과실주 kg 당 단가 ('24년 1분기) 9.2달러 → ('25년 1분기) 5.7달러

또한 가정에서 데우거나 끓여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밀키트 등 즉석 조리식품(2백만 달러→4백4십만 달러, +114.5%)과 고등어 등 수산물을 손질·가공한 필렛(Fillet) 형태 제품(8천3백만 달러→1억4천만 달러, +64.9%)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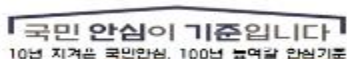
아울러 치즈(1억9백만 달러→1억9천만 달러, +71.2%), 전지분유(8백만 달러→3천2백만 달러, +300.0%), 버터(3천5백만 달러→5천7백만 달러, +61.6%) 등 유가공품의 수입이 크게 늘었는데 국민 식생활의 서구화로 소비 패턴이 변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2025년 수입식품 통계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 →통계정보→온라인 조회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증감 현황, 국내외 소비 트렌드 등을 분석하여 검사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2025년 1분기 수입식품 등 현황(통계자료)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손영욱 (043-719-2201)
		담당자	사무관	유행일 (043-719-2210)



1. 연도별 수입 현황

연도	수입건수	증가율(%) ¹⁾	중량(톤)	증가율(%) ¹⁾	금액(천달러)	증가율(%) ¹⁾
2021년	814,618	▲ 8.5	18,936,539	▲ 3.3	32,577,910	▲ 19.5
1분기	192,206	▲ 13.3	4,537,836	▲ 0.1	7,188,627	▲ 12.2
2022년	802,200	▽ 1.5	19,476,547	▲ 2.9	38,110,296	▲ 17.0
1분기	193,652	▲ 0.8	4,699,573	▲ 3.6	8,043,783	▲ 11.9
2023년	792,374	▽ 1.2	18,382,546	▽ 5.6	34,825,722	▽ 8.6
1분기	191,804	▽ 1.0	4,829,569	▲ 2.8	8,775,343	▲ 9.1
2024년(잠정)	846,594	▲ 6.8	19,380,930	▲ 5.4	37,878,314	▲ 8.8
1분기	197,468	▲ 3.0	4,750,112	▽ 1.6	8,366,361	▽ 4.7
2025년 1분기 (잠정)	203,169	▲ 2.9	4,707,303	▽ 0.9	8,656,909	▲ 3.5

1) 전년대비 증가율(*2020년 수입현황 750,993건, 18,332,908톤, 27,262,396천달러/2020년 1분기 수입현황 169,643건, 4,533,441톤, 6,405,971천달러)

2. 품목군별 수입현황

품목군	'25.1분기			'24.1분기		
	건수	중량(톤)	금액(천달러)	건수	중량(톤)	금액(천달러)
합계	203,169	4,707,303	8,656,909	197,468	4,750,112	8,366,361
식품 등 소계	153,643	4,047,935	5,486,475	146,326	4,060,557	5,238,966
	(75.6%)	(86.0%)	(63.4%)	(74.1%)	(85.5%)	(62.6%)
농·임산물	20,270	2,217,832	1,706,456	19,203	2,331,201	1,671,570
	(10.0%)	(47.1%)	(19.7%)	(9.7%)	(49.1%)	(20.0%)
	80,114	1,561,146	2,559,162	73,994	1,503,102	2,375,074
	(39.4%)	(33.2%)	(29.6%)	(37.5%)	(31.6%)	(28.4%)
	3,092	5,455	241,201	3,020	5,220	244,962
	(1.5%)	(0.1%)	(2.8%)	(1.5%)	(0.1%)	(2.9%)
식품첨가물	9,742	109,079	308,320	9,563	100,646	301,031
	(4.8%)	(2.3%)	(3.6%)	(4.8%)	(2.1%)	(3.6%)
기구 또는 용기·포장	40,425	154,423	671,336	40,546	120,389	646,329
	(19.9%)	(3.3%)	(7.8%)	(20.5%)	(2.5%)	(7.7%)
축산물	28,666	424,724	2,149,013	30,667	453,821	2,160,519
	(14.1%)	(9.0%)	(24.8%)	(15.5%)	(9.6%)	(25.8%)
수산물	20,860	234,643	1,021,422	20,475	235,734	966,876
	(10.3%)	(5.0%)	(11.9%)	(10.4%)	(5.0%)	(11.6%)

○ 농·임산물

(단위: 톤, 천달러)

'25.1분기		중량	금액	'24.1분기		중량	금액
전 체		2,217,832	1,706,456	전 체		2,331,201	1,671,570
소 계		1,611,289	609,032	소 계		1,821,631	762,857
1	옥수수(씨앗)	593,592	155,675	1	밀(씨앗)	738,897	224,795
2	밀(씨앗)	571,281	157,249	2	옥수수(씨앗)	636,242	175,135
3	대두(씨앗,건조)	296,525	173,406	3	대두(씨앗,건조)	248,756	167,557
4	바나나(열매,신선)	87,176	73,420	4	바나나(열매,신선)	101,048	99,526
5	현미(씨앗)	62,715	49,282	5	현미(씨앗)	96,688	95,844

○ 축산물

(단위: 톤, 천달러)

'25.1분기		중량	금액	'24.1분기		중량	금액
전 체		424,724	2,149,013	전 체		453,821	2,160,519
소 계		242,906	1,207,249	소 계		263,527	1,430,768
1	돼지고기(냉동,뼈無)	76,832	307,743	1	돼지고기(냉동,뼈無)	104,396	442,579
2	닭고기	53,250	110,142	2	닭고기	54,999	113,707
3	소고기(냉동,뼈無)	51,841	351,191	3	소고기(냉동,뼈無)	51,637	333,411
4	치즈	31,556	185,998	4	소고기(냉동,뼈有)	29,446	237,268
5	소고기(냉동,뼈有)	29,427	252,175	5	소고기(냉장,뼈無)	23,049	303,803

○ 수산물

(단위: 톤, 천달러)

'25.1분기		중량	금액	'24.1분기		중량	금액
전 체		234,643	1,021,422	전 체		235,734	966,876
소 계		94,649	200,545	소 계		91,138	139,501
1	명태(냉동)	42,718	44,704	1	명태(냉동)	45,767	43,929
2	고등어(냉동)	25,454	67,894	2	고등어(냉동)	16,399	36,492
3	아귀(냉동)	13,033	26,884	3	아귀(냉동)	14,191	26,814
4	오징어(냉동)	7,367	23,545	4	청어(냉동)	8,227	7,472
5	주꾸미(냉동)	6,077	37,518	5	오징어(냉동)	6,554	24,794

○ 가공식품

(단위: 톤, 천달러)

'25.1분기			중량	금액	'24.1분기			중량	금액
전 체			1,561,146	2,559,162	전 체			1,503,102	2,375,074
소 계			803,951	621,152	소 계			814,441	675,005
1	정제,가공을거쳐야 하는식품원료		527,422	417,019	1	정제,가공을거쳐야 하는식품원료		512,743	402,924
2	김치		81,429	44,621	2	천일염		99,298	6,780
3	과.채가공품		73,248	150,564	3	과.채가공품		78,333	190,941
4	천일염		65,784	4,719	4	김치		73,343	37,501
5	정제소금		56,068	4,229	5	절임식품		50,724	36,859

3. 국가별 수입현황(상위 10개국)

순위	국가	건수	순위	국가	중량(톤)	순위	국가	금액(천달러)
전체(150개국)		203,169	전체(150개국)		4,707,303	전체(150개국)		8,656,909
소계(10개국)		155,821 (76.7%)	소계(10개국)		3,858,978 (82.0%)	소계(10개국)		5,919,230 (68.4%)
1	중국	70,777 (34.8%)	1	미국	1,097,501 (23.3%)	1	미국	1,837,999 (21.2%)
2	미국	20,364 (10.0%)	2	중국	1,006,587 (21.4%)	2	중국	1,618,629 (18.7%)
3	일본	12,233 (6.0%)	3	호주	650,686 (13.8%)	3	호주	690,675 (8.0%)
4	프랑스	9,793 (4.8%)	4	우크라이나	278,713 (5.9%)	4	베트남	417,315 (4.8%)
5	베트남	9,240 (4.5%)	5	러시아	199,284 (4.2%)	5	러시아	250,464 (2.9%)
6	이탈리아	8,897 (4.4%)	6	태국	185,568 (3.9%)	6	태국	239,372 (2.8%)
7	태국	8,456 (4.2%)	7	베트남	155,842 (3.3%)	7	브라질	233,291 (2.7%)
8	호주	7,381 (3.6%)	8	캐나다	107,583 (2.3%)	8	프랑스	214,708 (2.5%)
9	스페인	4,459 (2.2%)	9	브라질	92,339 (2.0%)	9	스페인	209,470 (2.4%)
10	노르웨이	4,221 (2.1%)	10	말레이시아	84,873 (1.8%)	10	칠레	207,307 (2.4%)

4.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 부적합 현황

연도	건수	비율(%)*	중량(톤)	비율(%)*	금액(천달러)	비율(%)*
2021년	1,414	0.17	48,319	0.26	28,378	0.09
1분기	339	0.18	1,063	0.02	3,634	0.05
2022년	1,426	0.18	46,400	0.24	39,458	0.10
1분기	316	0.16	1,581	0.03	5,003	0.06
2023년	1,366	0.17	7,002	0.04	17,191	0.05
1분기	375	0.20	1,738	0.04	4,650	0.05
2024년(잠정)	1,454	0.17	7,352	0.04	19,908	0.05
1분기	313	0.15	1,412	0.03	4,920	0.06
2025년 1분기 (잠정)	303	0.15	1,288	0.03	3,836	0.04

* 전체 수입 대비 비율

○ 국가별 부적합 현황(상위 10개국)

순위	국가	건수	순위	국가	중량(톤)	순위	국가	금액(천달러)
전체(48개국)		303	전체(48개국)		1,288	전체(48개국)		3,836
소계(10개국)		214 (76.7%)	소계(10개국)		1,220 (94.7%)	소계(10개국)		3,254 (84.8%)
1	중국	100 (33.0%)	1	중국	515 (40.0%)	1	중국	966 (25.2%)
2	베트남	31 (10.2%)	2	베트남	343 (26.6%)	2	베트남	730 (19%)
3	미국	18 (5.9%)	3	인도	90 (7.0%)	3	미국	582 (15.2%)
4	튀르키예	14 (4.6%)	4	칠레	65 (5.0%)	4	호주	226 (5.9%)
5	인도	13 (3.0%)	5	호주	58 (4.5%)	5	인도	202 (5.3%)
6	일본	9 (2.6%)	6	미국	57 (4.4%)	6	칠레	134 (3.5%)
7	스페인	8 (2.3%)	7	튀르키예	28 (2.2%)	7	튀르키예	111 (2.9%)
8	인도네시아	7 (2.3%)	8	인도네시아	26 (2.0%)	8	인도네시아	106 (2.8%)
9	러시아	7 (2.3%)	9	에티오피아	19 (1.5%)	9	이탈리아	104 (2.7%)
10	이탈리아	7 (2.3%)	10	멕시코	19 (1.5%)	10	에티오피아	93 (2.4%)

○ 주요 부적합 사유(건수 기준)

순위	부적합 사유	'25.1분기	'24.1분기
계		303	313
1	개별 기준 및 규격 위반	76 (25.2%)	117 (37.4%)
2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67 (22.3%)	43 (13.7%)
3	잔류농약 기준초과	66 (21.9%)	57 (18.2%)
4	미생물기준 위반	42 (14.0%)	45 (14.4%)
5	이물혼입	17 (5.6%)	16 (5.1%)
6	허용외 식품원료(첨가물)	13 (4.3%)	8 (2.6%)
7	기타 식품 일반의 기준위반	8 (2.7%)	5 (1.6%)
8	부패변질	5 (1.7%)	2 (0.6%)
9	동물용의약품 기준위반	3 (1.0%)	6 (1.9%)
10	곰팡이독소 기준위반	2 (0.7%)	4 (1.3%)
11	중금속 기준위반	2 (0.7%)	6 (1.9%)
12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	2 (0.6%)
13	제조·가공기준 위반	- -	2 (0.6%)